



# 전주매일

## 민주 광역단체장들 “尹, 즉각 퇴진”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5명 “尹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5명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정 광주시장·김동연 경기도지사·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김영록 전남도지사·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오후 민주당을 통해 낸 공동성명서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나라”라며 “80년 5월엔 목숨을 걸고 전두환 군부 쿠데타에 맞섰고, 박근혜 정권 당시에 촛불을 들어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민주시민들이 지난 밤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또 한번 쿠데타 시도를 막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80년 5월 광주에 아픔이 대한민국 민주화로 승화됐던 것처럼 지난밤의 위기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관영 도지사를 포함한 민주당 소



4일 서울 국회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사진 왼쪽)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손을 맞잡고 있다.

### 민주당 등 야당,尹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 시국 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탄핵을 촉구했다.

앞서,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계엄을 해제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되살

리기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여야 의원 190명은 이날 새벽 1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 25분경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준비에 들어갔다.

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5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이르면 6일 새벽 탄핵안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 7일 전북자치도 무형유산 ‘매사냥’ 공개 시연

진안군 매사냥체험홍보관·백운면 일대에서

봉반이·배꾼·털이꾼 등 활용한 사냥법 선포

한국민속매사냥보존회(이사 박정오)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진안군 매사냥체험홍보관 및 백운면 일대에서 한국민속 매사냥 시연회를 진행한다.

매사냥은 진안군의 전통민속문화이며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올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4 주년을 맞이한다.

7일 열리는 행사에서는 매사냥체험홍보관에서 전통 매 및 등의 전시물을 보는 것부터 봉반이(매를 다루는 사

랑), 배꾼(매가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 털이꾼(사냥감을 붙여주는 사람) 등을 활용한 매사냥법 및 매 포획 방법 시연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매사냥은 길들인 매로 꿩이나 토끼 등을 잡는 것으로, 고구려를 중심으로 삼국시대부터 성행했다.

일제강점기에도 매사냥 허가 발급자가 1,740명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전통을 이어왔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매사냥’ (사진=진안군청 제공)

특히 진안군 백운면은 날짐승이 많고 눈이 많이 내리는 고원지대로 그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무형유산인 박정오 이사 외 5명의 이수자들이 그 맥을 이어 매로 토끼와 꿩을 잡는 전통 사냥법을 백운면에서 시연되는 것이다.

진안군은 이번 공개시연회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 매사냥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매사냥을 계승·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 자치도, 저출생 대응 시책 공공부문 선도 과제 발굴

다자녀 가구 공직채용기회 확대 위한 특례 반영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공직채용기회 확대와 다자녀 공무원 보육휴가 확대 등 공직사회가 솔선하여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육아를 하고 있는 직원과의 간담회,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북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저출생 대응 시책 공공부문 선도 10개과제’를 발굴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도내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공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해 출산 가구가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

현재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시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수집단에 대해 우대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채용을 우대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양육자에 한해 별도 구분모집을 통해 시험을 분리 실시할 수 있도록 다자녀가구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 ▲가족친화문화 확산

전북자치도는 솔선수범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공무원 보육 휴가 확대, 젊은 세대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손자녀 돌봄 시간 부여, 남성 공무원에게 배우자 동행 휴가 부여 등 9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다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공무원 보육휴가를 확대한다. 현재 도 복부조례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대상 자녀수에 관계없이 연간 5일만 부여하던 보육 휴가를 2자녀인 경우는 7

일, 3자녀 이상이면 10일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존 2자녀 출산시부터 부여하던 출산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실적기준을 첫째 자녀 출산시부터 0.5점 부여하도록 지난 10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1년 뒤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다자녀 가구 시군 공무원이 도 전입시험에 응시할 경우 2자녀는 3점, 3자녀 이상은 5점을 부여하며, 내년 전입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젊은 세대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자녀 돌봄을 위해 8세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매일 2시간씩 12개월 범위 내에서 전근 최초로 손자녀 돌봄 시간을 부여한다.

육아공무원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북형 주4일 출근제’를 실시하며,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주4일 출근·주1일 휴무형이나 주4일 출근·주1일 재택형 등 근무유형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족 친화형 당직 근무와 ‘일과 ‘아이 돌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족형 위케이션도 함께 추진해 일과 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은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은 완화를 위해 출산 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첫째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확대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임신, 육아 등 전 과정에서 남녀 모두가 동등한 주제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난임치료를 받거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는 남성공무원에게 배우자 동행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검진 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임신검진동행휴가를 10일간 부여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미래진안 건강도시, 자연치유 녹색도시, 생활 속 행복도시

